

地上軍 장비, 통신·유도·광학장비時代 開花

- 1992년 美 육군협회(AUSA) 전시회 取材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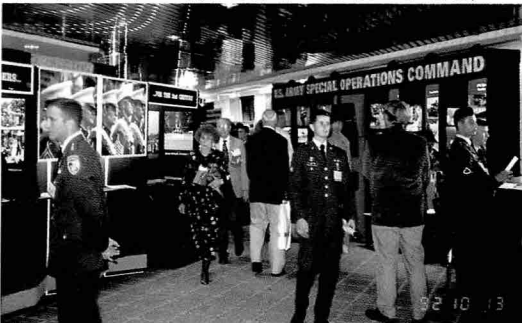


美 육군협회(AUSA)가 주최하는 1992년도 地上장비 전시회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웨라톤 워싱턴 호텔과 옴니 웨라톤 호텔에서 20개국 1백50여 방산업체가 출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만5천여명(현지 추정) 이상이 관람한 이번 전시회는 地上軍 장비가 통신·유도·광학장비시대대로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本文 계속)

출전 업체들의 4분의 3이상이 통신·유도업체였으며, 광학장비 및 기동(輕무장 지프 등 3개사, 장갑차 2개사, 자주포 1개사)을 제외하곤 거의 볼수 없었다. 소총과 탄약류 업체는 2개사만이 모습을 보였다.

商談과 계약을 위한 전시장은 마치 관측의 전쟁터나 다름없음에 비추어볼때 이제 세계 地上장비市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가장 인기를 끌었던 코너는 RM 35 자동로봇을 실연(實演)하였던 프랑스 GIAT Industries社였다.

웨라톤 워싱턴 호텔에 설치되었던 사령부별 소개 코너(장병들의 모든 문의에 답변)



세계의 대부분 전시회에 항상 출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IMI사와 Rafael社가 참여했으며, 유도부문에 스웨덴 Bofors사나 브라질 Avibras사 등 외국업체의 전시가 자주 눈에 띄었다.

屋內·外에서 병행하여 열렸던 이번 전시에서 옥외에서는 民·軍 공용의 다용도카(car)가 관심을 모았다.

주요 업체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화보를 통해 담아보았다.誌面관계상 더많은 업체를 소개하지 못함에 독자분들의 양해를 널리 구한다 (取材·김영태 本誌 편집장)

AUSA가 참관객들을 위해 설치한 홍보코너 주요 對外자료가 서적 목록과 함께 진열되었다

